

“우리가 연아 키즈”

피겨 랭킹대회 박소연 1위·김해진 2위...소치 출전권 획득

피겨 기대주 나주출신 박소연(16·서울 신목고)과 김해진(16·경기 과천고)이 나란히 ‘피겨 여왕’ 김연아(23)와 손을 맞잡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선다.

박소연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끝난 GS칼텍스 스케이팅 코리아 2013 회장배 전국 남녀 피겨 랭킹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프리스케이팅 합계 169.48점을 받아 여자 1그룹(13세 이상)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진이 155.24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55.29점을 받아 선두로 나선 박소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도 114.19점의 고득점을 기록해 격차를 한층 벌렸다.

쇼트 프로그램 2위(55.02점)에 오른 김해진도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00.22점을 받았으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순위에서는 화제가 었달렸지만, 박소연과 김해진은 이 대회 1~2위에게 주는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데 성공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여자 싱글 출전권은 3장이다.

김연아가 지난 3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홀로 출전, 우승하면서 한국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세부종목 한 곳에서 3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김연아가 한 장의 출전권을 갖고, 나머지 두 장 출전권의 주인을 이번 대회를 통해 결정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의 선두주자로 꼽히던 두 명의 동갑내기 ‘피겨 요정’이 소중한 기회를 잡았다.

김해진은 2010년 종합 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 이후 7년 만에 초등학생 우승자로 등극한 이래 끝난 한국 피겨의 미래로 꼽히던 선수다.

어린 나이부터 트리플 악셀을 제외한 5가지 트리플 점프를 소화해 주목받았다. 2012년에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5차대회 여자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이적표를 세우기도 했다.

생일이 늦어 한 시즌 늦게 주니어 무대에 올라온 박소연도 졸업 동갑내기 친구 김해진과 ‘다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어린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이끌었다.

박소연은 나주초등학교 6학년이던 13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재능을 인정받았고, 2009년 한태평양 국제 동계체전 노비스(13세 이하) 1위, 전국 남녀 랭킹대회 주니어 1위, 종별 전체 2위 등 빼어난 솜씨를 선보였다.

이후 서울로 진학해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에서 열린 제1회 동계 유스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4위를, 지난해 9월 터키에서 열린 ISU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김해진과 박소연은 올해 주니어 세계 선수권대회에도 나란히 출전, 12위(박소연)와 19위(김해진)에 오른 바 있다. 성적에서 보아듯이, 아직 소치올림픽에서 남보를 기대할 만한 기량은 아니다.

하지만 큰 무대 경험을 쌓고 시니어 무대에 올라 한층 성숙한 연기를 펼침으로써 김연아가 은퇴한 뒤 치러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망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서 열린 남자 싱글에서는 이준형(경기 수리고)이 쇼트프로그램·프리스케이팅 합계 189.52점을 받아 이동원(경기 과천고·182.82점)을 제치고 2011년 이후 2년만에 대회 정상을 되찾았다.

한국은 남자 싱글에서는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 나주출신 박소연

나주초 6년째 최연소 국가대표
작년 주니어 그랑프리 4차 ‘銀’

■ 과천고 김해진

초등학교때 점프 5종 소화
작년 주니어 그랑프리 5차 ‘金’

KIA의 선택 ‘즉시 전력감’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김상현·김민우·김준 영입



투수 김상현



내야수 김민우



투수 김 준

KIA 타이거즈가 ‘발등의 불’을 졌다.

지난 22일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열렸다. 각 구단이 제출한 40인 보호선수 외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2군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베테랑들이 눈에 띄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KIA는 투수 김상현(33·두산), 내야수 김민우(34·넥센), 투수 김준(28·SK) 등 세 명의 선수를 낙점했다.

가능성의 유망주가 아닌 당장 그라운드에 투입할 이들을 선택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 셈이다.

우안 김상현은 커브 하나로는 빠지지 않는 13년 차의 베테랑 투수. 안정된 제구와 커브로 선발과 롭타리프를 오가며 활약을

했다. 2010년 장성호의 트레이드 상대로 KIA 유니폼을 입을 뻔했던 김상현은 2010년 정강이 수술에 이어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는 등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올 시즌에는 35경기에서 67이닝을 소화, 5.9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4승4패3홀드를 기록했다.

선동열 감독 부임 당시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마운드 고민에 빠진 KIA는 안정감 있는 김상현을 선택하면서 불펜의 힘을 더했다.

3라운드에서 이들을 부른 좌완 김준도 불펜 운영에 플러스다. 올 시즌 SK의 불펜 좌완 요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준은 시즌 도중 트레이드 되어 온 진해수에 밀리며 올 시즌 1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제구와 배짱

이 좋다는 평가다.

2라운드에서는 1군 무대에서 508경기를 소화한 넥센 내야수 김민우를 잡았다. 내야는 주전과 백업의 큰 격차로 KIA가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약점. KIA는 내야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군 경험이 있는 김민우를 선택했다.

반면 KIA에서는 우완 김성계만 유일하게 NC의 선택을 받으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인기 없는 팀이 됐다.

이번 드래프트는 내년 시즌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자 KIA의 현실과 미래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보상선수’라는 큰 결림돌에도 불구하고 FA로 이대형을 잡은 KIA는 2차 드래프트에서도 먼 미래가 아닌 ‘즉시 전력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한 세 선수의 평균나이는 32세. 지난해 4강 탈락에 이어 올 시즌 급추락으로 인해 눈앞의 성적에 연연한 모습이다.

또 김민우는 검증된 선수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 6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뒷길잡음 친 2년 탓에 자동차 회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구단에 아쉬운 경력이 더해지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공격수 박현(오른쪽)이 지난 23일 경 찰과의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광주 FC 제공)

광주 FC 홈 폐막전 경찰축구단에 1-3패

광주 FC가 홈 폐막전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광주 FC는 지난 23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찰축구단과의 홈 폐막전에서 1-3 패를 기록했다. 0-1로 뒤진 후반전 광주는 소나기 슈팅을 퍼부었지만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4연승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창단 첫 4연승을 잇겠다는 광주와 1승3패의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경찰의 한판 승부였다. 경기 초반부터 경찰이 강하게 광주를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10분 경찰 정조국이 정확한 패스로 양상민의 골을 도우며 광주를 흔들었다.

경찰의 거친 공세에 밀렸던 광주가 점차 안정을 찾으며 점유율을 높여갔다. 전반 31분 김준엽의 슈팅이 기록제가 됐다. 김준엽의 베타슈팅이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는 것 같았지만 골대를 맞으며 튕겨나왔다. 김은선이 제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마저도 무위에 그치면서 광주는 땅을 쳤다. 그러나 이 슈팅을 시작으로 광주가 대반격에 나서 실세없이 경찰 골문을 두드렸다.

아쉽게도 종횡무진 위력을 발휘한 정조국이 광주에 발목을 잡았다. 선제골을 도왔던 정조국이 후반 9분 이후의 도움을 받아 득점까지 기록했다.

후반에만 8개의 유효슈팅을 만들어낸 화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골문을 가른 공은 단 하나였다.

남기일 감독대행의 교체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29분 박현을 대신해 김호남이 그라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2분 뒤 문전으로 쇄도하던 김호남이 세 명의 수비수를 무력화해 만든 일발 슈팅을 날리며 골맛을 봤다. 김호남의 추격골과 함께 그라운드는 더욱 뜨거워졌다. 리드를 지키려는 경찰의 거친 플레이 속에 양팀은 5개의 경고 카드를 주고 받았고, 후반 38분 경찰 정조국이 퇴장을 당했다. 후반 42분에는 광주의 베테랑 마철준이 레드카드를 받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마지막까지 공세를 이어간 광주는 경찰의 역습에 무너지면서 후반 추가시간에 고경민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했다.

전체적인 공격은 광주의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공격의 핵 루시오의 공백 속에 임선영까지 경고 누적으로 벤치를 지키면서 홈 폐막전은 패배로 끝났다. 한편 광주는 홈 폐막전을 맞아 하이파이브 행사를 마련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단은 그라운드에 도열, 경기장을 찾은 관중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홈팬들과 작별을 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2013년 송년 디너쇼



— 프로그램 —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





남진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